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 Channel

2016 July\_Vol.162





## Cover story

인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삼성KPMG!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약한 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 용감한 자들에게는 기회다.” -빅토르 위고

여러분이 바라본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삼성KPMG는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로 힘찬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절대 이룰 수 없기에 많은 인재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삼성KPMG는 한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함께 성장해갈 인재들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는 곳, 삼성KPMG와 더욱 큰 미래를 그려 나갑시다.

# Contents

July 2016 Vol.162 삼성KPMG 뉴스레터.

## 건강한 성장

- 04 **About 삼성KPMG**  
삼성KPMG의 내일을 함께 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 06 **행복한 삼성KPMG!**  
'일할 맛 난다!' 임직원이 행복한 법인, 삼성KPMG
- 08 **신입회계사의 하루**  
신입회계사 정성훈 Associate의 하루 집중탐구
- 10 **Team Spirit**  
삼성KPMG Strategic Operations Consulting팀
- 12 **Client+**  
인터파크
- 14 **Market Reader**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
- 16 **Excellence Report**  
AUDIT / ADVISORY

## 행복한 일터

- 19 **Culture Relay**  
사랑하는 삼성인을 칭찬합니다!
- 20 **Talk! 연결고리**  
리크루팅 TFT 멤버들과 나누는 삼성KPMG Story
- 22 **이색삼성★**  
프로경기 2전 2승에 빛나는 복서 김건영 Manager
- 24 **Purpose Story**  
'Our Higher Purpose!'
- 26 **가자 세계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친절을 베푸는 나라, 캐나다
- 28 **Samjong News**  
삼성KPMG, '제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 개최 외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디자인 홍보팀(02-2112-7567) 제작·인쇄 네오메디아(02-512-1666)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http://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특집 1

# Today for Tomorrow

## 삼정KPMG의 내일을 함께 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삼정KPMG는 인재들과 함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해 Vision 2020을 선포했다. Vision 2020을 함께 만들어 갈 예비 삼정인을 기대하며,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인재가 성장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삼정KPMG를 만나보자.

### Vision 2020 달성을 위한 첫걸음!

#### 인재 성장을 돕는 삼정KPMG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

Vision 2020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FY16 삼정KPMG No.1 전략은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삼정KPMG는 '고객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Extraordinary Professionals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재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삼정KPMG만의 차별화된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 Junior(1~3년 차) 집중 육성 프로그램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직무 역할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직급별 전문 직무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Professional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삼정KPMG Junior Auditor로서 갖춰야 할 Technical Knowledge, Professionalism, Global Mindset을 배양하기 위해 3년간의 'Junior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우수자에게는 '영국 케임브리지 해외 어학 연수'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 외 Junior Consultant를 위한 'Advisory 1, 2 교육'이 진행되며, 본 교육은 현업 파트너들과 Global Faculty의 전문적인 지원으로 전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여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Trusted Advisor'로서의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TAX Junior를 위한 'TAX

Technical School 1, 2'를 통해서 세무 전문 지식과 Self-Leadership을 향상 시키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Advisory 1,2 교육



GEP 성적 우수자 해외 연수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Higher Purpose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성과자 해외 연수', 'S.Manager 승진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Junior 1~2년 차에게는 'EF 온라인 어학 스쿨' 과정을 전액 지원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학습자에게는 '영국 케임브리지 해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고성과자 해외 연수 프로그램



## 당신의 열정과 도전으로 함께 그려갈 Vision 2020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다가오는 2020년을 대비하여 삼정KPMG가 새롭게 선포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 삼정KPMG는 법인과 고객의 동반성장을 이루고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이끄는 ‘건강한 성장’을, 임직원 모두가 높은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며 ‘가장 일하고 싶은 법인’이 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클린 펌 원칙으로 업계에 모범이 되며 시장의 변화를 주도해가며 ‘신뢰받는 조직’, 삼정KPMG로 나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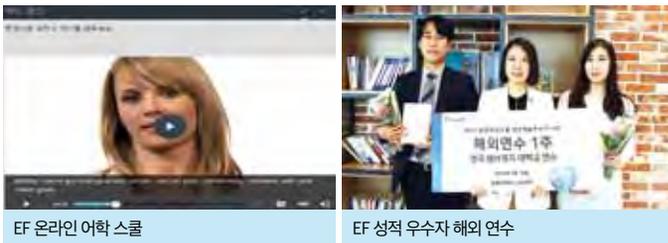


개인의 여학 역량 육성뿐 아니라 KPMG Member Firm의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동료 및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입 공인회계사 입문 교육’과 ‘Advisory Fundamentals 교육’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KPMG Story를 체화하도록 하여 법인에 대한 자부심과 로열티가 충만하고 법인 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이 확립된 인재를 육성합니다.



S.Manager 승진자 해외 연수



EF 온라인 어학 스쿨

EF 성적 우수자 해외 연수



KPMG On Boarding 프로그램



신입 공인회계사 입문 교육



Value Day

## ‘The KPMG Story’를 내재화한 실천 인재 육성 프로그램

법인에 입사한 우수 인재들이 보다 빠르게 현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KPMG On Boarding 프로그램’과 ‘Value Da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KPMG Story를 내재화하여 업무 속에서 이를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Advisory Fundamentals 교육

## 채용특집2

생생지락(生生之樂, 백성들이 모두 생업에 종사하여 삶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세종대왕의 정치적 목적이었다. 삼정KPMG는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 마련과 근무환경 개선 등 끊임 없는 변화를 추구해왔다. 인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 삼정KPMG를 소개한다.



# ‘일할 맛 난다!’

**건강한 성장**을 지향하는 일하기 좋은 법인

**Associate Pooling 제도** 삼정KPMG는 업계 최초로 Associate Pooling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커리어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회계사로 입사하여 약 1년 동안 Audit, Tax, Deal Advisory 등 Global Accounting Firm의 다양한 업무와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부 이동(NCP)** 임직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부 이동 제도인, NCP(New Challenge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파견** Global Korea Practice(GKP)를 운영하여 한국 기업의 Globalization 전략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23개국에 45명이 파견 근무 중입니다.





# 임직원이 행복한 법인, 삼성KPMG

## 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Benefits Program** 특별한 날, 부모님을 찾아 뵈는 선물을 준비해 드리는 '부모님을 뵙니다', 자녀의 학급에 간식을 제공하는 '아빠&엄마가 간다', 기념일에 소중한 분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병원에 모셔다드릴 수 있도록 법인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리무진 서비스', 타 본부원들과의 소통과 교류 증진을 위한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삼삼오오' 등 삼성KPMG는 임직원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BLSP)** Work & Life Balance 증진을 위해 입사 3개월 후부터 자기개발, 문화 및 레저, 건강증진 등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전용 복지카드를 통해 연간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BLSP(Beautiful Life In Samjong Program)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각종 재해사고와 질병에 대해 포괄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 임직원들의 여가생활 지원과 상호 커뮤니케이션 증대를 위해 가족, 동료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총 7개의 동호회(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마라톤, 자전거, 트래킹)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게 라운지 & 사내식당**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임직원 휴게 라운지 및 Reclining Seat 운영, 다양한 제휴 업체 할인 행사, 지정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만점 식사를 제공하는 사내식당 '정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일부 식비를 지원합니다.

**사회공헌 활동** 삼성KPMG는 '아름다운 동행의 문화를 만든다'라는 비전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교육, 환경,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채용특집 3

예비 회계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계사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다.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입사해 회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정성훈 Associate(IM3본부)의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 이름 정성훈 • 나이 30 • 본부 IM(Industrial Market)3본부 • 취미 골프, EPL 경기 시청 • 요즘 최대의 관심사 스크린 골프 90타 깨기, 그린에서 머리 울리기, 반기 이후의 휴가계획(UK) • 특이사항 1. 차가운 도시남자의 이미지이지만...차갑지 못하다! 2. 듣고 싶지는 않은 말인데 주변에서는 회계사처럼 생겼다고 한다.
- 예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의 꿈과 함께 동행합니다. 삼성 KPMG는 여러분의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고의 하우스입니다.



"음 스텝~ 이 향긋한 모닝 커피의 향~!"

### 8:50 AM 기쁜 마음으로 출근

출근 시간은 9시! 전날 야근이나 회식이 없다면 보통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운동 후 아침식사도 챙겨먹고 출근하는 정성훈 회계사. 요즘 그가 출근하면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은 휴게 라운지. '카페인 중독자'라는 그에게 라운지의 에스프레소 머신은 삶의 큰 활력소이다!

## 회계사의 하루가 궁금하다!

### 09:00 AM 본격 오전 업무 시작!

업무 시작에 앞서 그는 메일과 수첩 점검을 통해 오늘 할 업무와 일정을 정리한다.



"자, 오늘은 반기 검토업무 투입 관련 회의와 리크루팅 T&T 회의가 있군!"



### 10:50 AM

#### 궁금한건 인차지에게 바로 물어봐

궁금하게 있으면 바로 인차지에게 물어본다는 정 회계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반기보고서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팀에서 파악한 이슈나 업무 일정을 다시 확인해본다.



**02:00 PM**

**반기 검토업무에 앞서 진행된 고객사 회의**

본격적인 반기 검토업무에 앞서 고객사와의 회의 시간. 그는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꼼꼼하게 기록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힘쓴다.



“오늘은  
기가 차게  
맛있네!”

**12:00 PM**

**사내식당 ‘정원’으로 Go Go!**

기다리던 점심시간! 정 회계사는 최근 새롭게 변화된 사내식당 ‘정원’에서 점심을 즐긴다.



**03:30 PM**

**라운지에서 즐기는  
오후 꿀 휴식!**

고객사 미팅을 잘 마친 정 회계사는 잠시 쉬기 위해 동료들과 휴게 라운지를 찾았다. 커피도 한잔하며 꿀 같은 휴식으로 남은 근무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한다.

# 신입회계사 정성훈 Associate의 하루 집중탐구

“후배들에게  
법인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해!”



**04:15 PM**

**리크루팅 TFT 멤버들과 채용설명회 회의**

6월 말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이 끝나면 시작되는 채용 활동. 올해 처음 리크루팅 TFT 멤버로 활동 중인 정 회계사가 채용설명회 준비를 위해 리크루팅 TFT 선배들과 회의를 가졌다.

“타 분야 간  
교류를 위해 식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삼삼오오’가 있어  
참 좋네~”



**6:30 PM**

**동료들과 함께하는 삼삼오오**

오늘도 수고한 정 회계사는 법인에서 지원하는 ‘삼삼오오’로 동기들과 만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한다.



# 기업의 성과창출 위한 최고의 경영혁신 파트너

## 삼성KPMG Strategic Operations Consulting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삼성KPMG는 'Strategic Operations Consulting(SOC)'팀을 신설했다. SOC팀은 기업의 사업 전략 실행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 정립을 위한 주요 기능별 개선 및 혁신 방안을 수립,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전문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기업, 어려운 환경 속 효율적인 운영 체계 갖춰야

한국 경제는 활력 저하와 중장기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다.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 기간산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한계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 심화와 빠른 시장 변화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전자, 자동차, 유통 산업 등 산업군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 차원의 사업재편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 환경 역시 Industry 4.0, 국가 간 FTA 및 각 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시프트로 인한 큰 변화와 글로벌 양적 완화, 브렉시트

(BREXIT), 중국의 저성장 및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별 기간 산업재편 및 신성장동력 확보와 같은 경영 혁신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3D Printer, Big Data, IoT 및 AI 등 기술의 발전은 기업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 경영자들은 기업 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아시아경제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100대 기업 전략담당 임원 인터뷰 결과 98%가 현 경제 상황은 중대한 위기라고 진단했으며, 경제성장을 역시 장기적인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불투명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은 수많은 기업의 몰락과 신규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예전과 비교해 기업 운영

에 더 많은 리스크와 비용이 요구되고 그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복잡한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적절하고 실용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저성장 및 Digital Transformation,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대안을 수립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앞으로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전략적 운영혁신 파트너, 삼정KPMG SOC

삼정KPMG는 그간 축적해온 기업 혁신 경험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선제적 변화와 경영 혁신, 사업 핵심 경쟁력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Strategic Operations Consulting(SOC)'팀을 설립했다.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삼정KPMG SOC는 기업의 Business Performance 향상과 그 가치를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많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축적한 인사이

트와 가이드스(Guidance)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Process 경쟁력과 Transformation은 기업의 본질적인 핵심 역량과 기업 가치의 기반인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별 최적화된 Process Innovation Plan을 제시해 기업의 지속 성장과 가치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삼정KPMG SOC는 전략적 운영혁신 파트너(Stratops Offering Partner)로서,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에 경영 관리, 공급망 관리, 구매, 물류 및 디지털 혁신까지 아우르는 고객사+솔루션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세계 최고의 경영혁신 파트너로 거듭날 것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 전략은 Real Time 기반의 의사결정 및 실행력이 필수이다. 더불어, 시장 성장의 정체는 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높은 제품/서비스 품질과 동시에 원가를 낮춰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삼정KPMG SOC는 국내외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혁신 실행을 수행한 전문 컨설턴트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이 당면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지속성장 및 신사업 전략 추진을 위한 최적화된 기업 운영 효율성(Operation Excellence) 제고를 위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영 혁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삼정KPMG SOC 주요 서비스

#### 전사 업무 혁신 (PROCESS INNOVATION)

DATA ANALYTICS 기반의 업무 혁신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기업 오퍼레이션 전략 수립 (OPERATIONS STRATEGY)

글로벌 운영모델(운영전략/프로세스/시스템/조직 등) 정의 후 상세 실행방안 수립 및 지원

#### R&D 혁신 (PRODUCT DEVELOPMENT)

모든 QCD(품질/원가/일정)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및 시스템 설계와 구축 자문 수행

#### 공급망 진단 (SUPPLY CHAIN ASSESSMENT)

고객이 원하는 상품/서비스를 최적의 원가/스피드로 제공 가능한 체계 수립

#### 공급망 계획 수립 (SUPPLY CHAIN PLANNING)

공급망 운영 계획을 최적화할 기법과 프로세스를 제시. 또, 판매 운영 계획 체계를 설계, 적용하여 수요, 공급 최적운영 및 사업계획-실행계획 연계와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

#### 구매 혁신 (PROCUREMENT TRANSFORMATION)

전략구매, 개발구매, 조달구매,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 정립 및 SRM, E-PROCUREMENT 구축, CATEGORY 구매 전략 수립 및 실행 기반 구매 원가 절감 실행

#### 물류 최적화 (LOGISTICS OPTIMIZATION)

창고/재고관리 및 수/배송 최적화를 통한 적시공급 체계 및 비즈니스 스피드 확보

#### 제조/생산성 개선 (PRODUCTIVITY IMPROVEMENT)

통합적 혁신을 통한 제품 경쟁력 및 원가절감 목표 달성

#### 경영관리체계 고도화 (FINANCIAL BUSINESS MANAGEMENT)

원가/수익성 분석체계에 기반을 둔 경영전략 수립/실행/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수립

#### 수주 산업 프로젝트 관리 고도화 (PROJECT RISK MANAGEMENT)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업무 단계에서 일정/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RISK의 사전감지 가능한 프로세스, RULE & POLICY 및 시스템 설계/구축

#### DIGITAL TRANSFORMATION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사업 확장,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디지털 혁신 활용한 경영혁신 (BIG DATA ANALYTICS, SMART FACTORY 전략 수립 등)

#### PROCESS & MASTER DATA MANAGEMENT

비즈니스 운영기준과 정책을 반영한 전사 표준 프로세스 및 기준정보 관리 체계 정립을 통하여 기업 오퍼레이션 수준 향상



### CONTACT US

#### 봉찬식 파트너 (SOC 리더)

Tel. 02-2112-7732 E-mail. chansikbong@kr.kpmg.com

#### 이만재 파트너

Tel. 02-2112-7917 E-mail. minjaelee@kr.kpmg.com

#### 이동근 파트너

Tel. 02-2112-7587 E-mail. tongkeunlee@kr.kpmg.com

#### 최석윤 DIRECTOR

Tel. 02-2112-7421 E-mail. sukyoonchoi@kr.kpmg.com



##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가는 국내 최초의 e커머스 기업, 인터파크

1996년 6월 1일 국내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인터파크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약 2,4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e커머스 기업이다. 인터파크는 '인터넷 테마파크'의 줄임말로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서, 쇼핑, 엔터테인먼트&티켓(ENT), 투어 부문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상품에서 무형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 스마트 쇼핑 플랫폼, 'Shopper's ♥ Heaven 쇼핑'

인터파크 쇼핑 부문은 오픈마켓의 가격경쟁력과 종합 쇼핑몰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최상의 고객 가치를 추구한다.

쇼핑몰 개설 이후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생활 전반에 걸친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카테고리별로 가장 현명하게 쇼핑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스마트 쇼핑 플랫폼'을 완성해 가고 있다.

인터파크 쇼핑은 전문가 수준의 눈높이를 가진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2010년부터 전문화 전략 사업을 검토 및 개발해왔으며 완구, 패션, 가구 등의 전문몰을 구축해 경쟁력 강화 및 수익 증대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함께 모바일 쇼핑의 전체 거래액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쇼핑 시장의 진출 초기인 2012년 2~3분기는 쇼핑 부문 거래액 대비 거래비중이 1% 미만이었으나, 2014년에는 전년 대비 26.7% 증가한 14%를 기록, 인터파크 전체 모바일 거래액 비중에서는 20%를 차지했다. 최신 IT 기술을 도입한 전문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 결과, 2015년 9월 기준으로 연초 대비 모바일 거래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쇼핑 전체 거래 중 모바일 거래비중이 48%를 차지했다.

### 1997년 오픈한 '국내 최초 인터넷서점'

국내 최초 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는 지난 19년 동안 출판계 발전 및 독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2002년에는 바코드 물류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재고를 대폭 확충한 후 경기도 파주에 1,2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오픈, 주문처리속도 향상 등 물류



1.한남동 블루스퀘어\_뮤지컬 외관 2.카오스 공연 사진 3.도서 물류센터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2003년 업계 최초로 도서 무료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2006년부터는 독자가 뽑은 ‘최고의 책’(2013년부터 골든북 어워즈로 변경) 시상식을 진행, 그해 최고의 책과 작가, 출판사를 선정 중이며 2014년에는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현장 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등 출판업계와 독자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왔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자책 시장의 확대에 따라 인터넷 서점 시장의 성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파크는 20년간 축적된 도서유통사업에 대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온라인 도서 유통 사업에서 오프라인상의 콘텐츠 투자와 유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존 B2C 사업 중심에서 B2B, C2C 사업으로의 유통 채널 강화를 꾀하는 것이다. 여기에 출판 사업 투자 등을 통해 밸류 체인을 확장,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로서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 나만의 여행 스타일 ‘인터파크투어’

인터파크투어는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50만 해외호텔 DB와 전국 5,000여 개의 숙박 DB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호텔 실시간 예약, ▲해외항공권 24시간 상담 서비스, ▲해외여행 오디오 가이드 등 전문 문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로 여행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최근 개별여행(FIT)을 즐기는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에어텔(항공권+호텔)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여행산업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B2C 항공권 시장의 11%를 점유한 투어 부문은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2015년 약 1조 5천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하며 전체 해외송출객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항공권의 구매가 항공권 구매 성장률보다 고성장을 이루면서 2015년 기획여행 거래액은 60% 성장했다. 무엇보다 항공권과 국내외 호텔, 패키지 상품라인을 구축한 인터파크 투어사업은 이미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구축해 2015년 모바일 거래액이 전년 대비 77% 증가하며 전체 투어 부문 거래

액의 34%를 넘어서는 등 투어 사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대한민국 No.1 예매는 ‘인터파크’

인터파크 Entertainment & Ticket 부문은 라이브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 국내 모든 장르의 공연과 영화, 전시, 행사, 레포츠까지 문화예술 체육 전반적인 행사 정보 및 티켓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공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티켓유통사업에서 다년간 축적한 DB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연 제작 관리, 투자, 공연장 운영사업과 시스템 매니지먼트 등 공연 산업 전 분야에 진출해 우리 공연 산업이 보다 투명하고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있다.

공연 투자와 티켓유통 영역에서 공연 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인터파크는 미래의 공연 산업 발전 기여를 위해 공연장인 한남동 블루스퀘어(삼성전자홀, 삼성카드홀)와 합정역에 위치한 롯데카드 아트센터를 직접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연투자부터 티켓판매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재단법인 카오스(KAOS)’ 운영

2014년 11월 26일 설립된 재단법인 카오스는 ‘과학·지식·나눔’이라는 가치 하에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이 사재 출연해 만든 민간 과학 재단이다. 카오스는 ‘Knowledge Awakening On Stage’의 약자로 ‘무대 위에서 깨어난 지식’을 뜻하며, 대중 강연, 지식 콘서트, 출판 등을 통해 난해한 과학과 수학의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타 부문의 학문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단법인 카오스’는 ‘카오스 과학위원회’를 주축으로 매년 ‘올해의 과학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강연 및 지식 콘서트, 출판을 진행해 대중이 과학을 보다 흥미롭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과학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책, 화상강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 중이다.

#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 New-Shoring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최근 동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Issue Monitor>에 담고 있다. 이번 <Market Reader>에서는 리쇼어링을 넘어 뉴쇼어링 전략에 주목한 <Issue Monitor>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 뉴쇼어링 New-shoring 전략의 필요성

신흥국의 인건비 상승, 제품주기의 단축, 지적재산권의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국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로의 무조건적인 회귀는 합리적인 전략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제조기업은 해외 투자의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입지를 고수할지, 국내로 회귀할지, 제3국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뉴쇼어링(New-shoring)의 새로운 입지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입지 전략이 필요한 원인으로 중국으로의 투자환경 악화, 해외투자목적의 변화, 우리나라의 불투명한 리쇼어링 환경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를 감안하더라도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인건비 상승, 자국산업보호 강화 등으로 인해 최근 중국으로의 투자는 급격하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으로 부터의 이탈에 따라 제조기업은 과거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를 탐색할 시점이다.**

또한 제조기업의 해외투자목적이 과거 저임활용, 수출촉진에서 최근에는 선진기술도입, 현지 시장진출로 점차 변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불필요한 목적의 해외투자를 철회하고, 국내 복귀 또는 변화된 투자목적에 맞는 제3국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리쇼어링이 미국을 중심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미국은 세일자원으로 인한 저렴한 에너지 가격, 압도적인 특허수를 앞세운 첨단기술, 내수규모에서 국내 산업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이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내 유턴 기업수는 최근 들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즉 우리나라의 리쇼어링의 환경은 불투명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 제조기업을 위한 맞춤형 뉴쇼어링 전략

제조기업에게 맞춤형 뉴쇼어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속한 업종군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종별로 투자목적의 변화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동차 업종의 경우 현지 시장진출 목적의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촉진과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자동차 업종은 현지 시장진출 목적의 최적 투자지역으로 멕시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멕시코는 글로벌 Supply Chain이 갖춰졌고, 집적이익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저임활용 목적의 진출에서도 중국과 베트남의 비중이 대폭 축소되고 멕시코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학업종의 경우 현지 시장진출의 투자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선진 기술도입 목적의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화학업종은 자급률을 높이고 있는 중국, 저렴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중동지역이 부상함에 따라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일본으로의 투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쟁국의 급부상 등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는 비슷하지만, 대응방식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 기업이 설비 중심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했다.

전자업종의 경우 수출촉진과 선진기술도입 목적의 투자비중이 축소된 반면 현지 시장진출,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자 업종이 투자대상으로 주목해야 할 지역은 단연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다. Intel, Microsoft, Canon 등 글로벌 전자 기업들이 베트남**

제조기업의 업종별 해외투자목적 우선순위와 투자목적별 적합지역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1차금속**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주: 괄호안의 숫자는 투자목적의 우선순위를 의미

**에 생산공장을 집적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하위 벤더들의 시장진출 전망도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제3국 진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베트남은 TPP, AEC 등으로 주요 시장과 연결돼 있어 베트남 내 생산제품이 무관세 또는 저관세로 미국·일본·유럽·아세안 국가 등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기계업종의 경우 보호무역 타개, 저임활용 목적의 해외투자 비중이 급감하고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계 산업에서 투자대상 1순위는 여전히 중국이다.** 과거 저임활용, 보호무역 타개를 위한 해외투자의 주요국은 중국이었고, 여기서 감소된 투자액이 대부분 중국에서 현지 시장진출 목적으로 바뀌어 재투자되고 있다. **또한 기계업종은 최근 자동차, 전자의 전방산업 이동에 따라 멕시코와 베트남으로의 진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차 금속업종은 제3국 진출 목적의 투자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저임

활용, 현지 시장진출 목적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철강 업종을 필두로 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1차 금속 제조기업들은 원가절감과 내부적인 구조조정 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전히 1차 금속 제조업에서 현지 시장진출은 투자목적의 최우선 순위에 있지만 주요 투자 대상국이었던 중국, 인도, 미국으로의 투자금액이 대폭 축소되었다. 반면 최근 칠레가 현지 시장진출 목적의 투자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2015년 칠레에서 8건의 현지 시장진출 목적 신규투자가 발생했고, 국내 대형 철강회사도 금속 제련 플랜트 시장에 진출했다. 연관 기업도 칠레의 시장 상황과 금속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책임연구원  
Tel. 02-2112-7469 E-mail. doobeenyim@kr.kpmg.com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금융상품 기준서 (IFRS 9)의 도입과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B&F본부  
신재준 상무이사

## AUDIT



2015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334개 신조어를 보면 앵그리맘, 뇌섹남, 오포세대, 심쿵 등의 SNS나 방송을 통해 많이 소통되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언어는 그 역사성에 의해 사용자들의 사회적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즈니스 언어인 회계도ダイナ믹하게 변화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반영한 신조어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1981년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에서 '에이어드밴티지(AAdvantage)'라는 세계 최초의 상용고객우대제도(FFP, Frequent Flyer Program)를 선보였다. 고객이 지불한 항공권 가격을 항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와 마일리지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항공서비스 대가는 매출, 마일리지 대가는 부채로 기록하도록 한 고객충성제도(Customer Loyalty Program)는 새로운 회계언어가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약 120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회계언어인 국제회계기준(IFRS)도 경영환경의 변화와 정보이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지속적인 제·개정 과정을 거치며 변화해왔다. 지난 2014년 7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준서가 제정되었는데, 'IFRS 9(금융상품)' 기준서가 그것이다. 이 기준서는 2018년부터 국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IFRS 9(금융상품)' 기준서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9(금융상품)'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회계기준서의 요구가 있었다.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가 복잡하고,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실제 발생 가능한 손실보다 작게 그리고 지연하여 반영했으며, 경기순응성을 조장하는 등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것이 주요 비판 내용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전까지 재무제표상 별 문제가 없어 보였던 패니 매페(Fannie Mae), 프레디 맥(Freddie Mac), 베어스텐스(Bear Stearns),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등 금융사 등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해 연쇄적으로 파산했고, 유럽 등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공적 자금을 받는 등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무너졌었다.

**'IFRS 9(금융상품)' 기준서는 이러한 경험과 비판을 반영하여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을 단순화하고, 대출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대손충당금 산출 및 측정 방법 등을 정교화하여, 조기에 그리고 충분하게 인식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상품을 주로 보유·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는 'IFRS 9(금융상품)' 기준서 적용 준비에 있어 현재의 비즈니스, IT시스템, 프로세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신규 'IFRS 9(금융상품)' 기준서를 회계계수의 산출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Compliance 준수로 접근하기 보다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구성·운용, 신용평가, 여신 실행 및 사후관리, 자금조달,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전반에서 고도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스타트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파이낸싱



Deal Advisory 5본부  
김이동 상무이사

## ADVISORY

스타트업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금유치다.

흔히 파이낸싱(Financing)이라고도 한다. 기업에게 돈은 피와 같아서,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성장도 유지도 어렵다. 이에 스타트업 기업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최근 트렌드를 담은 파이낸싱 개략을 전하고자 한다.

예부터 가장 오래된 파이낸싱 기법은 ‘돈을 꾸는 것’이다. 이는 차주가 가진 신용과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흔히 차입금융(Debt Financing)이라고 한다. 차입금융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고 경영권을 저해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성장하는 기업에서 차입금융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통해 주주수익률을 높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이 오히려 손실을 기록하게 돼 차입금융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과 안정적인 금리가 예상될 때 활용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이 대형 상업은행과 거래하기에 자산과 신용이 부족하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 채권과 주식투자의 중간인 ‘메자닌 투자’ 활발

스타트업 기업에 더욱 적합한 투자자는 자본투자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캐피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같은 곳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원금에 대한 수익창출이 최대 목표이므로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라고도 부른다. **FI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면 탄탄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시장의 전망, 매출 달성 계획, 조직 운영계획 등이 상세히 준비되어야 한다.**

재무적 투자자에게 제공할 자료는 그들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EBITDA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비용을 더한 수치), IRR (투자금과 미래현금의 현가를 일치시키는 수익률), Multiple (상장된 유사기업의 주가 대비 재무수치) 등이 FI의 주요 관심사다.

**따라서 자본유치를 준비하는 경영자는 위의 수치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계획, 인력계획,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근래에는 부채와 자본 투자의 중간단계인 메자닌 투자도 활발하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 부채보다는 이자율이 낮지만 보통주로 전환하여 추가수익을 기대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많은 FI들이 리스크는 줄이면서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메자닌 투자를 선호한다. 이때, 기업 경영자는 추후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비율, 상장에 실패했을 때 의무사항, 신규투자자 유치 시 제약 사항 등 투자자가 제시하는 주요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의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주식교환 방식의 벤처연합이 등장하기도 했다. 옐로우모바일, 오백볼트(500V) 등이 그 예다. **여러 벤처기업이 연합하여 상호 매출연계, 비용절감을 이루므로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주식교환을 해주는 모기업으로부터 긴급한 운전자금을 총당할 수도 있다.** 또, 모기업이 상장하거나 매각된다면 상당한 자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연합기업의 손익이 악화될 경우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고, 주식교환을 한 후에는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데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기업 주도하의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스타트업 기업의 활약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이 실물경제에 우선할 수는 없지만, 금융을 간과한 실물 또한 위험하다. 창업을 준비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경영자들이 파이낸싱 활용을 통해 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 행복한 일터

---

Culture Relay

Talk! 연결고리

이색삼정★

Purpose Story

가자 세계로!

Samjong News

#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홍성준 Director가 전태웅 Manager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열정과 배려로  
후배를 이끌고  
고객 감동 실현하는  
진정한  
어벤져스입니다!”

ITC  
홍성준 Director



전태웅 매니저는 이웃본부의 야근 필수 인원으로 얼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저희 ITC본부 인원들은 늘 해외출장과 야근으로 고생이 많은데, 바로 등을 맞대고 있는 IM4본부에도 유난히 야근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지친 스텝들 곁에서 잔잔히 격려하는 매니저가 있어 인사를 건네게 되었는데 전태웅 매니저였습니다. 푸근한 인상처럼 스텝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을 보고 이런 매니저들의 고생과 배려가 KPMG를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매니저 직급에서 많이들 업무에 회의를 느끼고, 퇴사를 결심하곤 하는데 전태웅 매니저의 태도는 오히려 저의 초심을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업무적 어려움은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후배를 이끄는 부담감은 소명을 다 하는 기쁨이 된다’는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한 업무 성과와 성공적 프로젝트로 모두가 주목받으려 한다면 고객의 진정한 가치(Value)나 동료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은 희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야근을 마다치지 않고 후배를 다독이며 고객을 감동시키는 전태웅 매니저야말로 ‘진정한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웅들의 고뇌를 담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를 전태웅 매니저에게 추천합니다.

##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태웅 Manager에게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를 추천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2016 / 액션, SF, 스릴러 / 감독 앤소니 루소, 조 루소 / 출연 크리스 에반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외

역대 최강 마블 히어로들의 대격돌로 주목받은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팬들 사이에서는 ‘어벤져스 2.5’라고 불릴 정도 많은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는 화려한 캐스팅과 압도적인 스케일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는 물론이고 <아이언맨> 시리즈, <어벤져스> 시리즈, 그리고 최근 개봉한 <앤트맨>까지 모든 마블 영화를 총망라하여, 어벤져스 내부 분열을 그려내 이목을 집중시킨 작품이다.

\*<Culture Relay>는 동료 또는 선후배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책 혹은 영화 등을 선물하는 릴레이 형식의 칼럼입니다.



## 삼성KPMG 홍보단! 리크루팅 TFT 멤버들과 나누는 삼성KPMG Story

지난해 삼성KPMG는 Big4 중 가장 많은 신입회계사를 채용했다. 사상 최대의 지원자가 몰려 채용한 결과인데, 많은 지원자가 몰린 이유에는 후배들 가까이에서 삼성KPMG를 소개하는 리크루팅 TFT 멤버들의 힘이 크다. 올해에도 많은 인재 채용을 계획 중인 삼성KPMG의 리크루팅 TFT 정에 멤버를 만나본다.

### 삼성KPMG愛 빠진 삼정인!

**한대근:** 2009년부터 리크루팅 TFT 활동을 해왔으니, 올해로 꼭 7년째네요. 당시 파트타임(Part-time)으로 근무하면서 IM2본부와 감사시즌을 함께 보냈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열정적으로 협업하는 모습에 반해 삼성KPMG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선배들과 리크루팅 TFT 활동을 하게 됐고요.

**손용익:** 솔직히 다들 회계사에 합격하고 나면, 'Big4 중 어디를 가

야 할까?' 많이 고민해요. 저 역시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 혼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채용설명회도 들었죠. 당시 삼성KPMG 채용설명회를 듣는데,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이내믹한 분위기에 끌려 입사하게 됐고, 리크루팅 TFT 멤버로 활동하다 2년 차 되던 해 총무가 됐어요. 막중한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총무로 활동하고 있네요.

**허예상:** 저 역시도 채용설명회 덕분에 법인에 입사하게 됐어요. 2학년 때, 처음으로 채용설명회를 통해 회계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고, 회계사란 꿈이 생겼죠. 그리고 회계사가 된다면 꼭 삼정 KPMG에 입사하고 싶었어요. 당시 서지희 전무님과 노원 상무님께서 삼정KPMG는 성차별 없이 동등한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 해주셨어요. 현재로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에 많은 후배들에게 법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유승:** 맞아요. 우리 법인에서 최초로 여성 파트너를 배출하기도 했잖아요. 하하. 저는 고시반에 있을 때, 찾아오신 선배님들께서 너무나도 알뜰살뜰히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 받았고 삼정KPMG란 곳에서 꿈을 펼쳐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입사하면 저도 힘들게 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후배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돼줘야겠다고 다짐했구요.

### “삼정KPMG의 기본 좋은 변화를 느껴봐~”

**손용익:** 이제 2차 시험이 끝나면 후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채용설명회도 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후배들에게 법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 있어 기분이 좋네요.

**한대근:** 그렇죠. 리모델링을 통해 근무환경도 개선됐고, EF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육도 지원해주고, 해외 연수 기회도 확대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또, 사소하지만 총마다 생긴 휴게 라운지에서 쉴 수도 있고, 공용회의실 외에도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인 프로젝트룸이 생겨 참 좋은 것 같아요.

**손용익:**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삼정KPMG는 변화할 준비가 된 곳'이란 점이에요. 삼정KPMG는 아랫사람의 의견도 잘 수용하고, 변화할 수 있는 소통하는 조직이에요. 실제로 경험했기에 '변화되고 소통하는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히, 신입회계사에만 포커스를 맞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Manager급 이상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주니 함께 비전을 갖고 나아가 수 있어요.

**허예상:** 맞아요. 지난해 S.Manager 승진자분들께서 영국 케임브리지로 해외 연수도 가시고, EF 온라인 프로그램 학습 우수자분들도 이번에 해외 연수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NCP(New Challenge Program)제도를 빼놓을 수 없어요. 모든 임직원이 원하는 본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유승:** 무엇보다 Pooling 제도로 여러 본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법인의 장점이예요.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Pooling 제도 때문에 법인에 입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제가 경험한 삼정KPMG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오늘 제가 연차인데 시험을 앞두고 시반 후배를 만나고 왔어요.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걸 저도 경험했으니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었죠.

### “후배들아, 우리 함께 성장하자!”

**허예상:** 언젠가 한 번은 법인에서 신입회계사를 만났는데, 채용설명회에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법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겨 입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리크루팅 TFT 활동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저를 통해 좋은 후배들이 법인에 입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앞으로는 리크루팅 TFT 활동과 일예에 있어서 Purpose의 의미를 더 찾아볼 계획이에요. 왜 일하는지 늘 고민하며 성장해가고 싶어요.

**유승:** 리크루팅 TFT 활동으로 오히려 제가 좋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젊은 후배들의 즐겁고 기운찬 에너지를 보면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솔선수범하는 선배가 되어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솔직히 법인에서 일하면서 타 법인 생각이나, 퇴사를 생각한 적은 없어요. 열심히 하면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삼정KPMG잖아요. 세계 주요 도시의 Korea Desk 해외파견으로 글로벌 역량도 기를 수 있고요. 많은 후배들이 법인에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한대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의 장점을 키워갈 기회를 부여하는 곳이 삼정KPMG예요. 열심히 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오고,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삼정KPMG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재들과 함께 성장해갈 많은 후배들도 필요해요. 법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후배들이 많이 채용되어 법인의 변화를 주도하고 신뢰를 부여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손용익:** 리크루팅 활동을 하면서 만난 후배들이 법인에 입사해서 성적 우수자로 뽑히고, 전문가로 발전해가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후배들이 법인에서 함께 일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계속 리크루팅 TFT 활동으로 후배들을 만날 것 같아요. 또 장기적인 목표는 소통하고 변화하는 조직, 삼정KPMG와 함께 후배들과 더 유연하게 소통하고, 발전해가는 삼정KPMG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 프로경기 2전 2승에 빛나는 복서 Domestic Tax 1본부 김건영 Manager

# “복싱 향한 열정만큼은 메이웨더와 파퀴아오 못지않아요!”

이번 호에서는 복싱에 대한 무한 애정과 일에 대한 열정을 모두 갖춘 삼정인의 이야기를 마련했다. 21세기 프로복싱을 이끄는 양대 아이콘, 메이웨더를 롤모델로 삼고, 파퀴아오를 존경한다는 Domestic Tax 1본부 김건영 Manager에게 리얼 복싱 스토리를 들어본다.



### 복싱의 시작은? ‘살 때문이야~’

땅거미가 내려앉은 저녁, 김건영 Manager와 함께 역삼역 근처의 한 건물로 향했다. 좁은 통로의 계단을 지나 지하로 향하니, 파이터들의 세계가 펼쳐졌다. 들어선 곳은 매 주말 김 Manager가 찾는 복싱장으로, 입구 벽면에는 김건영 Manager의 시합 사진들이 가득했다.

군인 시절, 95kg의 몸무게로 일명 ‘비만소대’로 자대배치를 받았다는 김 Manager는 뚱뚱하단 이유로 메인 반찬도 적게 받고, 걷기 힘든 거리도 구부로 이동하는 등 참혹한 다이어트를 경험했다.

“당시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막상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이 상쾌해지더라고요. 심신의 변화를 느끼고 나니 제대 후에도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결심했고, 그래서 찾은 곳이 복싱장이었어요.”

평소 운동을 즐겨 하지 않던 그였지만, 짧은 시간에 최대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고, 유-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싱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 “회계사 시험공부를 했을 때와 법인 입사 후 업무 적응 시기를 제외하고는 복싱과 늘 함께였어요. 복싱한 지도 이제 7년이 지났네요.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복싱 덕분에 몸도 건강해지고, 프로경기에 출전해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고, 복싱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도 만났으니 일석삼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 짜릿했던 프로경기에서의 승리

그가 처음 프로경기에 나선 건 2014년 6월 인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경기였다. 당시 체육관 관장과 코치의 적극적인 제안에 출전을 결심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처음 출전한 프로경기를 KBS N Sports에서 생중계했어요. ‘걱정하시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부모님에게 출전 사실을 숨겼지만,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 남자 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겠단 생각에 설레는



1. 2015년 5월 일산원마운트에서 열린 프로경기 당시 모습 2. 경기 승리 후 받은 영광의 트로피 3.함께 운동하는 관장, 코치와 포즈 취한 김건영 Manager

마음으로 출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경기 3달 전부터 그는 맹훈련에 돌입했고, 새벽 1시까지 야근을 한 날 에도 집이 아닌 체육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의 정해진 훈련을 마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당시엔 힘든 것도 모르고 마냥 즐거웠다.

“저는 복싱을 취미로 하고 있지만, 경기에 출전한 상대 선수들은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프로선수를 꿈꾸는 친구들이었기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하지만, 운 좋게도 첫 경기에서 판정승으로 이겼고,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했을 때만큼 기뻐던 것 같아요. 하하”

그로부터 1년 뒤, 김 Manager는 두 번째 프로경기에 도전했다. “2015년 5월 일산 원마운트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당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링을 둘러싸고 시합을 관람했어요. 하지만 링에 올라선 순간만큼은 주변의 카메라, 관중들은 보이지 않고, 상대 선수와 저만 세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덕분에 시합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승리의 여신은 김건영 Manager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와의 실력이 백중지세(伯仲之勢)였기에, 경기 중의 영광의 상처도 얻었다. 경기가 끝난 후 병원에 가서 눈가를 꿰매고 나서야 그는 아내에게 경기 출전을 숨겼던 게 떠올랐고, 2번째 경기를 끝으로 프로경기에서 은퇴했다. “출전 선수들보다 제가 노장이라 체력적 한계도 있고, 경기 후에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하. 그리고 걱정할 아내를 생각하니, 복싱을 취미로만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복서 타이틀에서 최고의 Tax전문가로!**

지난해 5월 경기를 끝으로 프로경기에서 은퇴한 김건영 Manager에게 요즘 새로운 꿈이 생겼다. 입사 초기, 감사본부에서 일하다 NCP(New Challenge Program)를 통해 Tax본부로 옮겨온 그는 국내 최고의 Tax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제는 경기에서의 짜릿한 승리보다, ‘국내 최고의 Tax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요. 복싱을 하며 얻는 즐거움과 삶의 활력으로 업무에 더욱 매진해볼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링 위에서의 강인한 카리스마를 내뿜은 김건영 Manager라면 그 어떤 도전도 능히 해낼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그는 4대법인 축구, 야구, 농구대회가 있듯 ‘4대법인 복싱대회’가 열렸으면 하는 소망도 내비쳤다. 아마도 ‘4대법인 복싱대회가 열린다면, 웰터급 승리는 우리 법인 것이 아닐까?’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본다.

**김건영 Manager가 쏘다!**

**삼성KPMG 가족에게 ‘복싱 글로브’를 선물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유-무산소 운동으로 체력관리를 하고 싶거나, 머릿속 복잡한 고민을 날려버리고 싶다면, 복싱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복싱을 배우고 싶은 삼성KPMG 가족에게 김건영 Manager가 선착순 3명에게 ‘복싱 글로브’를 선물합니다. 복싱을 배우고 싶은 간단한 이유와 함께 김건영 Manager(kunyoungkim@kr.kpmg.com)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삼성KPMG에서 만난 동료와 선후배 중 남다른 취미 활동과 흥미로운 경력을 소유한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Channel>에서는 칼럼 ‘이색삼정스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생활하는 삼정인을 소개합니다. 추천 해주시는 삼정인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선물해드립니다.

\*문의 BD&Markets 홍보팀 김수지 대리 sujikim@kr.kpmg.com/ 02-2112-7567

# Our Higher Purpose!

지난 6월 20일 삼성KPMG 교육장에서는 'PPC Officer Story Workshop'이 열렸다. 이 워크숍에서는 본부의 People Care를 책임지는 PPC Officer들이 모여 KPMG Story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법인의 전략 중 하나인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각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인재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PPC Officer

삼성KPMG에는 본부의 People, Performance, Culture를 책임지는 'PPC Officer'가 있다. 주로 S.Manager, Director 직급으로 구성된 PPC Officer는 법인 생활의 선배로서 후배들의 커리어, 인간관계를 살뜰히 챙겨주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장이 본부의 아버지라면, PPC Officer는 본부 내의 살림을 챙기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지난 6월 20일에는 본부의 People Care를 책임지는 PPC Officer들과 함께 'KPMG Story Workshop'을 진행했다. **FY16 삼성KPMG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법인과 본부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법인의 핵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PPC Officer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본부의 행복한 일터를 이끌어 가는 PPC Officer들과 함께 KPMG Story를 공유하고 우수 인재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 구성원이 원하는 Work & Life 균형 맞춘 법인으로

'PPC Officer KPMG Story Workshop'은 서로의 이야기와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시작했다. PPC Officer들은 주변에서 People Care를 훌륭하게 하는 선배들의 모습과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특히 **본부의 People, Performance, Culture 담당자로서 늘 고민해왔던 점들을 나누고, 그 방안을 함께 모색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분명한 건 '삼성KPMG는 일이 좋고, 사람이 좋다'는 것이다. 이**



**는 PPC Officer의 역할이 주어진 이들에게 큰 자부심과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해 힘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워크숍의 본격적인 논의로 법인의 핵심 전략,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에 대한 미래상을 그려 보았다. 2020년, 법인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우수한 역량의 Manager에게 법인의 커리어 및 복지제도와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미션을 받은 PPC Officer들은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원하는 People Care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Work & Life Balance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성원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삼성KPMG, 상대방의 역할을 이해하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즐거운 삼성KPMG,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방향으로 커리어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뒷받침된 삼성KPMG'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은 PPC Officer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PPC Officer들의

#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People Care에 대한 고민이 향후 삼정KPMG가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 실행해 가는 PPC Officer

‘PPC Officer Story Workshop’의 마지막 시간은 향후 본부에서 진행할 활동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우리 구성원들이 KPMG Story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Awareness(인지), Understanding(이해), Engagement(내재화), Sustaining(지속)의 4단계로 접근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을 함께 만들기 위해 단계별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 이미 수년간 삼정KPMG에서 근무하며 그 누구보다도 본부의 분위기를 잘 아는 PPC Officer**

**들이기에 서로 효과적인 본부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다.** 이날 고민하고 도출한 아이디어들은 각 본부의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PPC Officer는 올해 본부에서 진행할 Story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7월에는 PPC Officer를 도와 본부의 Story 활동을 함께할 Purpose Agent 3기 워크숍도 진행한다. ‘PPC Officer Story Workshop’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인의 ‘우수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이 더욱 잘 실행되는 것은 물론, Purpose, 7Values, Vision, Strategy, Promise...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의 이야기, KPMG Story가 전 세계에 더욱 활발하게 공유되기를 바라본다.





캘거리 슈퍼문 야경 사진

## Canada Calgary Office 최민석 Manager

# 다양성을 추구하고 친절을 베푸는 나라, 캐나다

7월 1일은 ‘캐나다 데이’라고 한다. 영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연방 설립 기념일인 것이다. 캐나다인들에게 기쁨이자 행복의 날인 캐나다 데이를 맞이하여 이번 호에서는 Calgary Office의 최민석 Manager가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입헌군주제 국가, 캐나다

근대 국가로서의 캐나다는 160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프랑스의 식민지 개척이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도 캐나다에서의 식민지 개척을 시작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전쟁을 치른 결과 1700년대 중반 이후엔 영국의 식민지로 굳어졌습니다.

1982년 이후에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현재는 영국 국왕을 상징적 국가원수로 삼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영국 빅토리아 여왕 탄생일(Victoria day)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한 캐나다는 농산물과 천연 자원이 풍부하여 농업과 석유가스 산업 및 금융업이 발전했습니다. 다만, 캐나다 경제 기반의 상당 부분이 미국 자원을 중심으로 한 외국

자본에 기초해 만들어진 관계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에 따라 캐나다 경기는 미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특유의 보수적인 경영과 정부의 적절한 감독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2014년 이후 원유가격의 하락은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포트 맥 머레이의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이곳 캘거리가 소재한 앨버타주를 중심으로 캐나다 정부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기부와 자원봉사 나라로 불리는 이유

캐나다 고유의 생활관습 또는 문화에 대하여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우리 북미에서는…’이라고 답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웃나라인 미국과 문화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으며,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용 언어가 같고 문화적 경제적인 교류에 제약이 거의 없으며, 두 국가 모두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남을 돕는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기계조작을 위해 자동차를 잠깐 길가에 멈추는 경우,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옵니다. 이러한 국민성으로 인해, 캐나다는 기부와 자원봉사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캐나다는 자선구호단체 CAF(Charities Aid Foundation)에서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기부 규모에서 전 세계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드넓은 땅에서 적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돕고 사는 지혜가 몸에 밴 것 같습니다.

## 다양성을 추구하는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다양성에 대한 성공적인 내재화는 그 사회의 자산이자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백인 위주로 시작된 사회이지만 현재는 다양한 인종과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 국민 중 약 20%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며 이 비율은 대도시로 가면서 더욱 높아져서 50%를 넘기도 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인종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면서 남녀 15:15의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인종, 장애인 및 성 소수자에 대한 안배까지 고려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원주민(인디언 및 에스키모 등) 정책에도 반영되어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의 자치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 가스 개발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기업은 정부뿐만 아니라 원주민과도 독자적으로 협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원주민에게 일정 비율의 경제적 이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의 주요 고려사항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상당수의 구성원이 자신이 선택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로열티를 가지고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의 주요 도시는 경제 규모 및 풍부한 자원과 맞물려 매년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에서 상위 그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KPMG in Calgary & Korea Practice in Canada

KPMG Canada의 35개 오피스, 5,500명 이상의 임직원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Audit, Tax 그리고 Advisor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곳 캘거리 오피스(Calgary Office)는 설립 9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550여 명의 직원과 68명의 파트너가 근무 중입니다. 특히 에너지, Oil and Gas 및 발전 산업 분야는 캘거리 오피스를 중심으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부터 글로벌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PMG Canada에 설치된 Korea Practice는 약 20여 개의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Audit, Tax 및 Advisory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상의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9년 이후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등 주요 7개 오피스의 약 20여 명의 한국인 직원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Korea Practice는 앞으로도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CONTACT US

Canada Calgary Office 최민석 Manager  
Tel. +1 403 691 8000 E-mail. minchoi@kpmg.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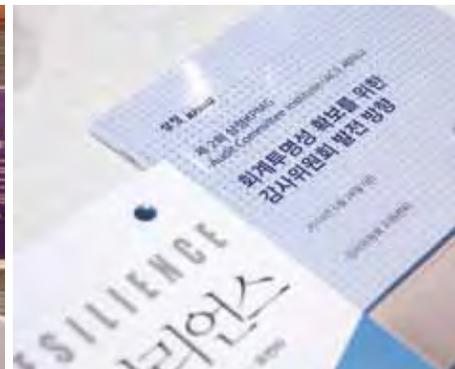


1. 일 년에 몇 번 정도 볼 수 있다는 캘거리 오토라, 2. 캘거리에서 보기 드물게 사람이 많이 모인 Lilac Festival 모습, 3. 캘거리 오피스의 Audit Head와 업무 협의 중간 찍은 사진

# NEWS

## SPECIAL NEWS

### 기업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 논의 삼정KPMG, ‘제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 개최



삼정KPMG는 지난 6월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정KPMG 김교태 CEO는 “최근 국내 기업의 부실경영과 불투명한 회계는 국가적 이슈이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입법화 단계에 있는 외감법 전부개정안에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감사위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강조했다.

**회계 ·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해야**  
이번 세미나에는 ▲고려대학교 이만우 교수(신한금융지주 감사위원장) ▲KPMG ACI 글로벌 리더 호세 로드리게스 ▲삼정KPMG ACI 리더 김유경 상무가 강연자로 나섰다. 이만우 교수는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회계투명성 분야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분야에서 한국은 각각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몽골 등 개발도상국 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은 경제주체 간 신뢰기반 구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거래비용 감소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한국 특유의 지배주주 이슈를



불식시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소함으로써 외국자본유치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한국 감사위원회 문제 ‘내부감사기능 부족·권한 제한·낮은 보상’

KPMG ACI 글로벌 리더 호세 로드리게스는 선진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로 한국 감사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 대비 한국 감사위원회의 문제점으로 ‘내부감사기능 부족, 감사위원회 권한 제한, 낮은 보상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미국 상위 200대 기업 평균 감사위원회 보수는 약 25만 불에서 30만 불로,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감

사위원회는 높은 보수만큼 활동시간도 많았다. 선진국의 경우 한국 대비 2배 이상의 회의시간과 개최빈도를 보이며 감사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4명 이상의 감사위원 구성과 연평균 9회 이상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등을 제시했다.

#### 국내실정에 적합한 제도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

삼성KPMG ACI 리더 김유경 상무는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상무는 “IMF 이후 정부차원에서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분식과 지배주주의 전횡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이라는 한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제도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명성 개선을 위한 감사위원회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감사위원의 충분한 업무시간 확보와 상응하는 보수 지급, 내부감사조직 설치 및 운영,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 선임’ 등을 꼽았다.

#### 감사위원회와 적극 소통해 위상 강화에 힘쓸 것

끝으로 감사부문 서원정 대표는 “삼성KPMG도 외부감사인으로서 외부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업무 전 단계에 걸쳐 감사수행 중 직면한 유의적인 어려움이나 내부통제의 미비점, 회계정책 및 추정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 등을 감사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상 강화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KPMG는 2015년 4월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를 출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들이 실무 역할을 수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발간한 바 있다.

MONTHLY NEWS

## 삼성KPMG,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 무패로 '첫 우승'

삼성KPMG가 지난 6월 11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민스포츠펀터 축구장에서 개최된 '제12회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무패 행진 끝에 영광의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는 삼성KPMG,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EY한영이 참가하는 축구대회로 삼성KPMG는 예선전 1위로 결승에 진출해 치열한 접전 끝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삼성KPMG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 전술과 그물망 같은 수비로 상대팀에 단 한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았다. 예선전에서 삼성KPMG는 삼일PwC를 상대로 2:1, EY한영을 1:0으로 격파하고, 딜로이트안진과의 마지막 예선 경기는 1:1 무승부를 기록해 예선 1위로(2승 1무)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경기 내내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후반전 박태인 선수(B&F1본부)가 왼발 중거리 슈트로 결승골을 터트려 우승을 거머쥐었다.

박태인 선수는 삼일PwC와의 예선 첫 경기 선취 득점에 이어 결승전 결승 득점으로 대회 MVP를 차지했고, 주장 시종근 선수(CM본부)는 안정적인 공수 조율로 삼성KPMG의 우승을 견인했다.

삼성KPMG 축구동호회장의 하병제 전무(Deal Advisory1본부)는 “김교태 대표이사 이하 전 임직원의 관심과 지원 하에 다져진 강한 팀워크가 우승을 이끈 원동력이 된 것 같다. 법인의 비전 2020'의 선포 첫해인 올해 우승을 차지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첫 우승의 소감을 밝혔다.



## 삼성KPMG 파트너 승진 인사 단행

### 전무 승진, 신입 상무 등 임원 인사 발령

삼성KPMG는 지난 6월 29일 파트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8명의 전무이사과 8명의 Equity Partner(상무이사), 14명의 Salary Partner(상무이사)가 승진했다. 또, 12명의 신입 파트너(상무)가 선임됐다.

신입 전무이사에는 ▲채민선 전무이사(B&F2) ▲권영민 전무이사(B&F3) ▲김대우 전무이사(IM3) ▲임근구 전무이사(IGH) ▲김 철 전무이사(JP) ▲강길원 전무이사(TP) ▲윤창규 전무이사(Deal Advisory4) ▲장현수 전무이사(몽골법인) 총 8명이 승

진하여 법인 성장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와 더불어 Equity Partner(상무이사)에 ▲전용기 상무이사(B&F1) ▲이종우 상무이사(CM) ▲오상범 상무이사(Domestic Tax1) ▲김경미 상무이사(FS Tax) ▲민홍길 상무이사(Deal Advisory3) ▲권준석 상무이사(Deal Advisory4) ▲김이동 상무이사(Deal Advisory5) ▲박상원 상무이사(MCS1) 총 8명이, Salary Partner(상무이사)에는 ▲어경석 상무이사(B&F1) ▲홍명국 상무이사(B&F3) ▲신문철 상무이사(CE1) ▲이상근 상무이사(IM2) ▲이

### 삼성KPMG 파트너 승진 인사

#### 신입 전무이사



강길원



권영민



김대우



김 철



윤창규



임근구



장현수



채민선

#### Equity Partner(상무이사)



권준석



김경미



김이동



민홍길



박상원



오상범



이종우



전용기

#### Salary Partner(상무이사)



어경석



이상근



김원택

정수 상무이사(IM4) ▲김 정 상무이사(Domestic Tax1) ▲조원영 상무이사(Domestic Tax1) ▲백승목 상무이사(TP) ▲백승현 상무이사(ATO) ▲이동근 상무이사(Deal Advisory4) ▲조기욱 상무이사(MCS1) ▲송정화 상무이사(MCS2) ▲김원택 상무이사(RCS) ▲현승임 상무이사(DPP) 총 14명이 승진했다.

신임 파트너(상무이사)에는 ▲김왕문 상무이사(B&F2) ▲이성노 상무이사(B&F3) ▲강인혜 상무이사(ICE1) ▲ 최이현 상무이사(ICE2) ▲김재연 상무이사(IM3) ▲박상옥 상무이사(IGH)

▲현윤호 상무이사(JP) ▲김성현 상무이사(TAX) ▲계봉성 상무이사(FS Tax) ▲고병준 상무이사(Deal Advisory1) ▲박 현 상무이사(Deal Advisory2) ▲서무성 상무이사(Deal Advisory2) 총 12명이 승진했다.

삼성KPMG 김교태 CEO는 “이번 새로운 파트너 영입과 승진을 통하여 법인의 핵심가치인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 ‘신뢰 받는 조직’을 실현해 중장기 사업전략인 ‘비전 2020’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신임 파트너(상무이사)



홍명국



이동근



현승임



신문철



강인혜



계봉성



고병준



김성현



이정수



조기욱



백승목



백승현



김왕문



김재연



박상옥



박 현



김 정



송정화



조원영



서무성



이성노



최이현



현윤호

## 삼성KPMG, KICPA 정기총회 표창 수상

삼성KPMG가 지난 6월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제62회 정기총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그간 공인회계사로서, 국내 회계, 외부감사제도의 발전과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임원 6명이 표창을 받았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승희 COO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한은섭 부대표 ▲행정자치부 장관에 공영철 전무 ▲국세청장에 이찬기 전무 ▲한공회 회장에 김대우 전무, 한기원 상무가 표창을 받으며 법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 삼성KPMG SIC, 본투글로벌센터와 MOU 체결

삼성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SIC)는 지난 7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컨설팅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삼성KPMG SIC는 본투글로벌센터의 얼라이언스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세무 자문, 글로벌 진출·성장 전략, 인수합병 및 IPO자문, 자금조달, IT컨설팅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동차 산업 세미나' 개최

삼성KPMG는 7월 1일, '자동차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 10년 내에 자동차 산업의 주요 사업모델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2025년까지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트렌드로 '신흥시장의 성장성'과 '대체 구동기술' 보다는 '연결성' 및 '디지털화'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발전을 위해 국내 최고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전망과 더불어 2016년 개정세법, 경영혁신전략 및 정보보안인증 등을 제언했다.



## 사랑나눔 '희망의 집짓기' 봉사 진행

삼성KPMG는 6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서 해비타트와 함께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 참여 직원들은 벽지 제거, 단열작업, 천장도배, 환경페인트 도장, 장판교체, 천장보수 및 벽면 도배작업, 내부정리 등을 작업했다. 한 직원은 "어려운 이웃이 건강한 환경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NOTICE

### ▶ 2016 삼성KPMG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세미나

- 주제 : 원샷법을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전략 모색
- 일시 : 2016년 7월 14일(목) 14:00 ~ 16:30
- 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30 (소공동 1),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
- 문의 : 한 혁 부장 (02-2112-7598, hyukhan@kr.kpmg.com)  
이인아 과장 (02-2112-0568, inahlee@kr.kpmg.com)

삼성  KPMG

# today for tomorrow

삼성 KPMG의 내일을 함께 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mailto: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